

# “KTX 후진 광주역 정치 효율성 떨어져”

##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민 형 배 광주 광산구청장

6·4 지방선거에서 83.36%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민형배(53) 광산구청장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대정신을 충족시키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민선 5기 “자치실현이 곧 진보다”라는 기치아래 주민 참여형 생활정치를 유난히 강조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소외된 이웃의 복지를 직접 챙기는 ‘투게더광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동을 위한 ‘광산구공익지원센터’가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민 청장으로부터 민선 6기 구정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83.36%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예상 밖의 일이라 깜짝 놀랐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께 감사 드리고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높은 지지라는 것은 그만큼 내용을 잘 채우라는 구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 명령을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공동체 광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답할 생각이다.

선거 후 최고 득표율이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첫째는 상대 후보가 한

무엇인가.

▲광산구의 민선 5기는 사회적 성장을 추구했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와 생활정치로 좋은 성과를 냈다. 민선 6기에는 이것을 좀 더 심화시키고 구체화해 공공성이 살아 숨쉬는 지역자치의 메카로 광산구가 도약해보자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한 신광산의 방향은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 광산’이다.

여기에 ‘여유롭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더불어 함께 하는 삶’,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 성장’이라는 4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 4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8개 분야, 40개 시책, 100개 정책들로 신광산 중기계획을 꼼꼼하게 세웠다.

—KTX 정치역 문제와 관련, 자치구간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이 문제는 광주 전체를 놓고 봐야한다. 광산구나 복구의 관점에서 KTX정치역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의 기능이 같으니 혹은 다른지 따져봐야한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은 기능 자체가 다르다. 광주송정역은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민형배 청장 프로필** ▲1961년 해남 출생 ▲목포고·전남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전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전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민선 5기 광산구청장 역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화 타 지자체 벤치마킹

## 주민참여형 생활정치 구체화 ‘자치 메카’ 만들 것

명 나오는 일대일 구도였다는 점. 둘째는 진보정당의 후보가 내놓은 공약 상당수는 (제)민선 5기에 완성했거나, 이번 선거에서 공약한 것이어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셋째는 저계유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럴수록 자만하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지방자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론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시민과 지역을 국가 의지에 따라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실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대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를 제대로 바꾸려면 개조가 아닌 재구조화 전략으로 가야한다.

변화의 첫 시작은 사회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관치 혹은 통치를 정리하고 사람에게 자율성과 주체성을 주고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치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만들어가고, 민주적인 공동체들이 모이고 모이면 국가가 된다.

—4년간 추진할新光산 중기발전계획은

광주역은 특정 지역의 교통 편의가 주목적이다.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광주송정역이 광주역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후진 KTX’다. KTX가 광주역에 들어서려면 광주송정역에서 약 37분간 후진해서 가야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 비용 등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는 고속철의 원래 기능이 뒷걸질 치는 것이다. 지하철이든, 철도든 광주역을 연결하는 다른 교통수단을 만들면 된다. 이것이 바로 광산구와 복구가 상생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일자리 문제도 사회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실제 산단조성, 대기업 유치 같은 것은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자치구는 대체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은 ‘재무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성과’라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답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광산구는 민선 5기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열심히 추진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폐지 좁은 어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어른들은 사회적 연대속에서 실제로 자신의 일을 갖게 됐다. 또 청소년이 폐업하게 됐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 협동조합 만들어 운영하다 보니 청소년도 더 잘되고, 자신들의 복지 수준도 높여 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스마트그리드 기반 분산전원시스템’ 사업은 무엇인가.

▲이 사업은 스마트그리드와 분산전원시스템이 결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신도불이 발전소가 우리 인근에 있고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분배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팔아 수익도 더 얻는 미래형 발전 시스템이

다. 광산구는 대명GEC와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 업무협약까지 맺었다.

사업이 본 계획에 따르면 1만7500가구가 연간 쓸 수 있는 99기가와트(G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또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4만6000기가칼로리(Gcal) 규모의 열은 수만 및 하남2·3지구, 첨단2단지 등에 지역난방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올해 이 제도로 국비 2700여 만원을 지원받아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시스템이 들어서면 국비 지원액과 재산세·취등록세 등 구 세외수입도 증가한다. 경제, 환경, 주민복지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발전시스템은 약 690억원을 투자해 수완지구 열병합 발전소 인근에 건립할 예정이고, 이달 말쯤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정성근, 폭탄주 이어 자녀 불법비자 의혹

### 여, 여론동향 무시

### 야, 낙마 총공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중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자녀의 불법비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거취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의 자녀가 불법비자로 미국 유학을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정 후보자가 특파원 신분이지만 안민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의 자녀가 불법비자로 미국 유학을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정 후보자가 특파원 신분이지만 안민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의 자녀가 불법비자로 미국 유학을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정 후보자가 특파원 신분이지만 안민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의 자녀가 불법비자로 미국 유학을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여야, 특별감찰관 후보에 화순출신 민경한 추천

### 임수빈·조균석 등 3명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민경한(56·사진) 변호사, 임수빈(53) 변호사, 조균석(54)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추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달 19일 시행됐지만 정작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이들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선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임명하는

22일 귀국하고 가족들은 이듬해 7월12일 귀국했다.

안 의원은 “이 시기는 두 자녀의 미국 유학 시기로 유학비자가 아닌 I 비자로 1년 가까이 유학한 것은 명백한 미국 이민법 위반”이라며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조기유학 목적으로 쉽고 빠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자신의 자위를 남용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 영주권 발급 등의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관련 있는 일이라 추후 해명하겠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회가 열린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정회 중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일원동 기자아파트 거주 여부를 둘러싼 위증 논란으로 정회된 상태였다.

또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명목의안과 아리랑TV 사장 때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4000만원 상당의 취득경위에 대한 조속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절차를 밟게 된다. 화순 출신인 민 후보자는 광주교과성군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9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법무부 검찰위원, 민주시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등으로 일했다. 특히 노동 관련 사건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임 후보자는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춘천지검 속주지정장, 대검 공안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등을 거쳤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부산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도, 무안·함평 양파 1만2000t 사들여 수출

시름에 잠긴 무안·함평지역 농민들이 거리에 쌓여둔 양파에 대한 수출 및 구매의 길이 열렸다.

전남도는 12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함평지역 도로변 등 노지에 적재된 양파 1만2000t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해 농협 및 민간 저장창고에 임시 저장한 후 7~8월 중 수출 및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반영한 것으로 농협과 산지 유통인 등에게 판매하지 못하고 별도 보관 장소가 없었던 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양파 2만 5000t의 수출 및 구매를 추진 중이며 계획 물량 중 48%인 1만2000t(수출 5000t·정부수매 7000t)을 전남에 배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지멘스 상무점  
약양빌딩5층 501호

● 동행(문선지점)  
● 미바(동진지점)

##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뿔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뿔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형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판넬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지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